

# “장흥군, 세계로 뻗는 K-문학 대표도시 만들겠다”

### 김영록 지사, 장흥서 정책비전투어...작가 생가 복원 지원 약속 역사문화 거점 구축·특산품 성장 기반 확보 등 7개 비전 제시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장흥군이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K-문학 대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이날 장흥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영록 지사,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을 비롯해 지역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비전 투어를 개최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한강 작가가 지난달 10일 한국인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문화예술관광을 균형 발전 동력으로 삼고 있는 장흥에 기회가 찾아왔다”며 “한승원 문학산책길을 부녀산책길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5억원과 한승원-이승우-송기숙 작가 생가 복원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15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장흥군이 2008년 전국 유일 문학관광 기행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K-문학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작가 생가 복원 사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지사는 “서울 일극체제로 가장 큰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전남 출생수당 지급, 청년 만원 주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역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장흥군이 전남도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장흥군 미래 비전 발표에서는 김대성

전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소장이 ‘그린바이오 혁신거점 대한민국 대표 관광-문학도시 장흥’을 주제로 ▲창의적 문화융합의 장 ▲옛 장흥교도소·해동사 중심 역사문화 거점 ▲장흥 생태관광벨트 구축 ▲대한민국 대표 축제도시 조성 ▲국토 남부 그린바이오 메가 도약 ▲장흥 특산품 미래 성장 기반 확보 ▲남북 교통망 단계적 확보 등 장흥 7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정책 현안 토론에서 지역민들은 수산식품 가공 기계 설비 지원 확대,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확대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정환 장흥통합의료병원장은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전남도, 장흥군, 원광대학교, 국립나주병원이 협약해 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치유센터를 운영, 우수 성과로 인정받아 대통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며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 소방공무원, 경찰, 해경 뿐만 아니라, 마음 치유가 필요한 도민이 곳곳에 있는 만큼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인표 장흥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은 “세계에서 이름을 알린 무산김을 생산하고 있지만 물김만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라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열린 ‘장흥군 정책비전투어’ 토론을 주재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과 제언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며 “다변화하는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제품 개발과 신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공 설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수산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적극 시책을 추진한 결과, 전남이 부산을 제치고 수산가공식품 생산액 전국 1위로 성장했

다”며 “국고 확보 활동을 비롯, 수산식품 개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 ‘행정감사 자료 부실’ 등 떠밀려... 광주시 행정부시장, 사과 표명

### 이귀순 의원 질타에 고광완 부시장 결국 한발 물러서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놓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의회에 출석해 공식 사과했다.

고 부시장은 이날 오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계 오류나 다소 부실한 자료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부실 자료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부시장은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행정 자위는 그런 어려움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진행해줘 감사드리고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귀순(더불어민주당·광산4)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중지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인가”라며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사과를 했어야 했고 오늘도 사과 말씀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단순 오타나 오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이후 보완 노력을 하지 않고 허위 답변을 하는 등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며 허위 자료 제출이나 고의 누락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고 부시장은 자료 부실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중단은 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이 의원의 지적이 계속되자 “의원님 말씀대로 사과드립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산업건설위원회에도 반드시 사과해달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대해 고 부시장은 “의원님이 그것까지 얘기하실...”이라고 하다가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자료 부실과 허위 답변을 이유로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시 통합공항공로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각 기관의 부실·허위 보고 문제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박성경 기자

## 인공지능 유망 기업들 광주행 줄이어

### 市, 10개사와 235-244번째 업무협약

팜리스·로봇·모빌리티·에너지 등 인공지능(AI) 유망 기업들의 행렬이 계속되면서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의 입지가 확고해지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그린에이아이, ㈜뉴월드, ㈜파이낸, ㈜모아이, ㈜제이지퍼넬, 카투, 코코넛사일로, 테이전트, ㈜티엠씨솔루션즈, ㈜헤리티지아이티 등 AI 유망기업 10개사와 235-244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들은 법인 또는 지역사회사무소 설립을 통해 AI 전문분야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해 광주 AI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문 인력 양성 등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클라이온(㈜그린에이아이) 하순태 대표이사, ㈜뉴월드 박지호 대표이사, ㈜파이낸 최은홍 대표이사,

㈜모아이 이동진 대표이사, ㈜제이지퍼넬 모귀환 대표이사, 카투(주)박규현 대표이사, 코코넛 사일로(주)강상구 선임매니저, 테이전트(주)문승혁 대표이사, ㈜티엠씨솔루션즈 최지원 부대표, ㈜헤리티지아이티 박재용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AI 전문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추진,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AI 전문 분야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회 사무소 설립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AI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강기정 시장은 “AI 대표도시 광주의 가속이 된 기업들을 환영한다”며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 맞춤형 인재, 도시 전역에서 가능한 실증사업 등을 갖춘 지역 AI 혁신거점 광주는 기업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경 기자

제4회  
무안 YD  
페스티벌

2024.  
11. 15. 금 -  
11. 17. 일

삼향읍 남악중앙공원